

- 주요 뉴스: 무디스, 러시아 정부가 원리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경우 디폴트 해당
 - 인민은행,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
 - 일본은행, 30년래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
 - 미국 3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월대비 0.9% 상승 등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금융시장은 성 금요일 휴장
주가 휴장[-], 달러화 강세[+0.4%, 금리 상승[+13bp]

- 주가: 미국 휴장
유로 Stoxx600 휴장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0.2% 강세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2%, 0.5% 하락
- 금리: 미국 국채 시장 휴장
독일 국채 시장 휴장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29.5원, 1.3원) 0.1% 하락, 한국 CDS 포함

				4/15일	4/14일	전일대비					4/15일	4/1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(휴장)		4,392.6		-	국채 금리 10y	미국	(휴장)		2.83%		-
	유럽	(휴장)		459.82		-		독일	(휴장)		0.84%		-
	중국			3,211.2	3,225.6	-0.45%	CDS 5y	한국			32bp	32bp	0bp
	일본			27,093	27,172	-0.29%		중국			67bp	67bp	0bp
	한국			2,696.1	2,716.7	-0.76%	위험 지표	EMBI+			-	375	-
환율	달러지수			100.5	100.31	0.18%		VIX	(휴장)		22.70		-
	유로화			1.081	1.0828	-0.17%		WTI유	(휴장)		106.95		-
	엔화			126.46	125.88	-0.46%	원자재	구리	(휴장)		472.4		-
	위안화			6.3715	6.3784	0.11%		금			1,978.2	1,973.7	0.23%
	원화			1,229.6	1,224.7	-0.40%		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무디스, 러시아 달러채 원리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경우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

- 지난 4.4일 러시아 정부가 '22년과 '24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루블화로 진행한 상황에서, 5.4일까지 지급을 달러화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무디스 규정상 디폴트로 간주할 것으로 발표
- 2.24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명령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외화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5.4일까지 달러화로 지급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
- 한편 여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의 경우 S&P가 지난주 러시아 신용등급을 “선택적 디폴트(selective default)”로 강등하며 디폴트 단계가 사실상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으며, Fitch는 3.26일 러시아 신용등급을 보류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인민은행,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

- 이번 지준율 인하는 실물 경제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, 약 5,300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. 또한 일부 지역의 도시상업은행들에 대해서는 지준율을 추가 25bp 인하할 방침
- 한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대출금리는 종전과 같은 2.85%로 유지

■ 일본은행, 30년래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

- 일본은행 주요 관계자, '22.1월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.1%로 예측하였으나, 1.5%~1.9%까지 올라갈 가능성 시사. 이는 소비세 인상 기간('97년, '14년, '19년)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
- 시장에서는 1.8%에서 2.5%(SMBC Nikko 전망)까지 소비자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, 최근의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 등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 점을 바탕으로 일본은행이 기존의 부양책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

■ 미국 3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월대비 0.9% 상승 등

- 전월의 증가율과 동일했으며 예상치(0.3%)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. 세부적으로 제조업은 0.9% 증가하며 예상치(0.6%)를 상회했지만 지난달(2월) 4개월래 최고치인 1.2%보다는 둔화
- 내구재 및 비내구재 제조업 지수는 각각 1.3% 및 0.4% 증가했으며, 기타 제조업(출판 및 벌목) 생산도 0.2% 증가. 유틸리티 및 광업 지수는 0.4%, 1.7% 상승
- 한편 뉴욕 지역 제조업황을 가늠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(0을 기준으로 +시 호황, -시 불황)는 4월 24.6으로 3월(-11.8, 22개월래 최저) 부진에서 반등. 하지만 기업들의 향후 6개월 이후 제조업 전망은 15.2로 지난달(36.2)보다 크게 하락하며 팬데믹초 이후 최저치. 임금을 비롯한 생산요소 가격 상승 등에 부담이 높아진 데 기인

■ 달러스 연은, 원자재시장에서의 마진콜이 거시경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경고

- 상품시장이 그동안 감독당국의 규제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, 라우 전쟁 이후 러시아 기업들과의 무역이 제한되면서 원자재 시장내 중개회사들의 신용이 급격히 하락하며 원자재 가격을 추가로 상승시킬 소지. 이 경우 위험 자산 부담 증가 → 시장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경제전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소지

■ LA 보건당국,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.2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경계

- 최근 7일 평균 일확진자수가 1,030명으로 전주(892명)보다 15% 증가한 가운데 BA.2 확산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느슨해진 방역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4/1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산업생산 증감율(mom): 0.9%, 2월(0.9%), 예상치(0.3%)
- 미국 3월 설비가동율: 78.3%, 2월(77.7%), 예상치(77.7%)
- 미국 4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: 24.6, 3월(-11.8), 예상치(1.0)
- 프랑스 3월 소비자물가상승율(yoy): 4.5%, 2월(3.6%), 예상치(4.5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3, E-mail jchwang@kcif.or.kr